

‘우리의 삶의 터전’ 이야기

운남 민족단결맹세비 – 영원한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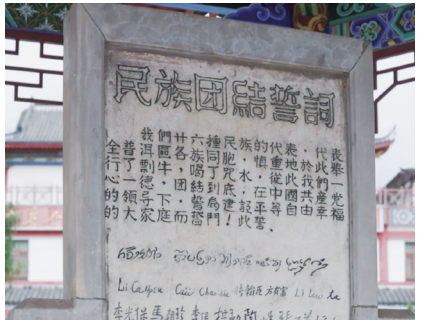
– 보이시 념이하니족이족자치현을 찾아

민족단결은 발전과 진보의 초석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의 생명선이다. 제 5차 중앙민족사업회의 개최 3주년을 맞으며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은 일전에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심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들을 담사했다. 아래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로 한다.

중화민족은 수천년 세월을 거쳐 우수한 전통문화를 창조해왔으며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전통문화는 중화민족의 뿌리이자 혼이다.

운남은 우리 나라에서 소수민족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6개 민족이 어우러져 살면서 풍부하고 다원적인 민족문화를 창조해왔다. 그런 리유에서 운남은 세계 ‘민족문화의 살아있는 화석’, ‘민족문화의 유전자 보물고’로 불린다.

다양한 민족문화가 살아숨쉬는 이곳에는 또 특수한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를 자랑하는 중요한 기념비가 있다. 바로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들의 단결의 상징물인 ‘민족단결맹세비’로 ‘새 중국 민족단결 (사업) 1호비’로도 불린다.



▲ 민족단결맹세비 비문

“우리 26개 민족 대표는 보이지구 전 지역 동포를 대표해 이곳에 모여 소를 잡고 정화수를 마시며 끝까지 일치 단결하기로 서약한다.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에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대가정을 만들기 위해 분투할 것을 이곳에서 서약한다.

보이지구 제 1차 형제민족대표회의 1951년 원단”

이는 보이시 념이하니족이족자치현의 보이민족단결원에 우뚝 솟은 민족단결맹세비에 새겨진 비문이다. 민족단결맹세비의 수립은 새 중국이 탄생한 후 신형의 민족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며 당시 중국공산당이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한 소중한 증거물로 된다.

운남성 보이시 념이하니족이족자치현 새일대관심사업위원회 장세웅(张世雄) 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크지 않은 기념비에 단 81자의 비문이 적혀있지만 그 함의의 폭과 깊이는 대단하다. 우선 기념비 수립의 취지를 정확히 짚어주었다. 26개 민족 대표가 정중하게 이곳에서 소수민족 전통대로 소를 잡고 정화수를 마시며 맹세를 한 것은 국경 소수민족들의 굳은 의지를 충분히 대변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끝까지 분투하려는 혁명정신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혁명투쟁은 성공하여 새 중국을 탄



▲ 민족단결맹세비 정자 앞에서 즐기는 여러 민족 군중

생시키고 그 이후로도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경험이라면 바로 모든 것은 중국공산당의 령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대가정을 위해 분투하려는 최종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가정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애국정신임을 비문에 명백히 밝혀둔 셈이다.”

민족단결맹세비는 70여년을 이어오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상전벽해의 변천사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치열한 분투사를 고스란히 지켜왔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비석에 새겨진 글말은 여전히 그 위력을 과시하며 쫓지않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즉 중화민족은 영원히 중국공산당을 따를 것이며 한가족이 되어 공동번영을 실현할 것이라는 중요한 정신적 공감대이다.



▲ 대형 유희 <영원히 당을 따라– 운남민족단결맹세비> 창작 현장

맹세비에 깃든 이런 깊은 뜻을 북돋으로 화폭에 옮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운남예술학원 미술학원 유희학과 류정(刘晶) 주임을 필두로 한 10명 청년교사들이다.

“당시는 마침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운남에서 있었던 이런 중요한 력사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또 예술창작인으로서 우리의 우세를 빌어 당시의 이야기를 재현시킴으로써 민족단결맹세비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널리 전하고 싶었다.” 류정 주임의 말이다.

현실주의 수법으로 당시 력사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였고 기술적 여건들이 부족한 탓에 보존되어있는 문헌자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26명 소수민족 대표와 당정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소를 잡고 맹세를 하는 장면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

“우리 창작팀은 전단계에 보이시 념이하니족이족자치현을 찾아 현장 고찰을 진행하고 관련 력사자료와 정보에 대해 엄밀하고 자세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의 그림은 순간기록이다. 수십명이 모여서 소수민족 전통 의식을 치르고 함께 그 순간을 경축하며 또 비석을 수립하기까지의 전반 과정을 한폭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있었다.

“운남은 민족이 많은 지역인 만큼 포용성이 강하다. 이런 포용성은 과거 우리 선인들이 수많은 노력을 들여 쌓아온 정신적 부이다. 우리 교사들 역시 조국 곳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기에 이런 포용성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여러 민족들이 하나같이 단결되어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창작을 통해 우리는 과거 이곳에서 발생했던 많은 력사사건들을 료해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민족단결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창작에 몰입했다.” 류정 주임은 이렇게 소개했다.

현재 이들이 창작한 <영원히 당을 따라–운남민족단결맹세비> 대형 주제 유희는 북경민족문화궁에 소장되어있다.

민족단결맹세비는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국경지역 여러 민족들이 장벽을 뛰어넘어 참신한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수립한 징표이며 새 중국 민족단결진보사업 발전의 력사적 증거물이다. 이런 민족단결맹세비를 력사배경으로 한 유희 속 형형색색의 여러 민족 인물형상은 저마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듯하다.

1951년 민족단결맹세비가 세워져서부터 여러 민족들이 석류씨마냥 뽕뽕 뭉쳐 행복한 생활을 가꿔가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민족대가정을 이루어가려는 정신은 한시도 변한 적이 없다.

“길이길이 빛날 이 기념비는 우리의 공통한 리상이고 신앙이며 다짐이다. 모든 인민들이 하나같이 뭉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이겨내고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세웅 주임은 힘있게 말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추석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추석은 중추절, 추월절, 배월절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의 중요한 명절의 하나이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일컫는 말로서 추석의 어원을 살펴보고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또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일년중 으뜸으로 가는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다. 추석은 상고시기의 추석제 월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데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가을 수확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한다. 아래에 비교적 대표적인 유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상아가 달로 날아간 이야기에서 추석이란 명절이 생겼다는 설이 가장 많다. 후예가 해를 하나만 남기고 야갯개를 쏘아버리자 그의 공로를 축하하여 하늘이 그에게 신선이 되는 약을 주었는데 그는 인해 상아를 떠나기가 아쉬워 약을 먹지 않고 상아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상아가 8월 15일 밤에 그 약을 먹고 신선이 되어 달나라로 날아가버렸다. 후예는 상아를 그리워하여 매년 이날 밤이면 상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원에 차려놓고 그 녀가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다. 이 이야기가 연변되고 부상되어 후에 추석이란 명절로 되었다.

추석은 고대 달에 제를 지내던 행사에서 서서히 변천해 왔다는 설이 있다. 고대의 력법에서는 매개 계절을 3개월로 나누었는데 각기 맹월, 중월, 계월이라 불렀다. 음

력 8월은 가을의 두번째 달이라 하여 ‘중추’라 불렀다. 원래 이날은 고대 제왕의 달맞이 명절로 정해졌고 점차 추석이 되었다.

우리 조선족은 ‘추석’을 ‘한가위’라고 불렀는데 한가위의 ‘한’은 ‘하다’(正大)의 관형사형이고 가위란 가배(嘉俳)를 의미한다. 가배란 가부의 음역으로서 가운데란 뜻인데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가운데를 가분데라 하며 가위를 가뽕, 기위날을 가뽕날이라고 한다. 한가위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을의 한가운데 즉 달이 둥근 보름의 뜻으로 ‘한가배’, ‘한가운데’, ‘한가뽕’로 된 순수한 우리말이며 ‘가위’, ‘가웃날’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추석에 달을 감상하는 풍속이 있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올리며 달을 감상하였다. 추석에 월병을 먹는 풍습은 적어도 송나라 때부터 있었다. 둥근 월병도 보름달과 마찬가지로 대단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추석 명절에는 또 석류, 대추, 밤, 굴, 포도 등 새로운 과일들을 맛보고 새로운 술을 마시는 등 ‘가을맛’을 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석은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대단원절로서 중화민족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전통문화이다. 멀리 타향에 있는 사람들은 추석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지게 된다. 추석은 풍년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추석은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준다.

각지 추석맛이 전통 민속행사 이어져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전통 민속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절강성 호주시 퉁천가두의 한 사회구역에서는 한복 패션쇼(아래 왼쪽 사진)를 선보이고 하북성 준화시 신화서점에서는 추석맛이 어린이 테마 행사를 마련하고 직원과 아이들이 함께 등롱을 만들었으며 강소성 흥화시 문림유치원에서는

투호 경기(오사진)를 펼쳤다. 강서성 남창시 청운보구에서는 중소학생들을 조직해 중화떡모형 대세계에 가서 아이들에게 추석 민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떡 모형 발전 력사를 소개하고 전통 수공 월병 제작을 체험시키면서 아이들이 중국 전통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도록 했다(아래 오른쪽 사진).

/ 신화사

안도와 알타이 손잡고 문화 융합의 새 장 펼쳐

– ‘신강의 정’ 특별공연 안도서

2024년 ‘신강의 정’ 특별문예교류 공연이 지난 5일 안도현장백산문화 박람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행사는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신강맞춤형지원사업전방지휘부와 성문화및관광청, 길림예술학원, 중공알타이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하였으며 안도현당위 선전부와 길림예술학원의 여러개 학부와 신강 알타이시 구가무단에서 주관했다.

첫 무대로 가부 <영원히 한가족>이 펼쳐지며 대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어 남녀이중창 <조국



을 위하여 건배>는 조국에 대한 관중들의 사랑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악합주 <둔황>은 둔황 문화의 깊은 력사와 예술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공연은 신강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풍

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였다.

안도현문화관에서 신강 알타이시구와 안도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처럼 준비한 무용 <아박춤>과 음악극 <장백산 아래 나의

집>을 내놓았다.

공연중 여러 민족 배우들은 각자의 문화 특색을 선보이며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공연을 통해 배우들은 서로의 예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두 지역의 문화예술 교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예술을 통해 관객들에게 중화민족 대가정의 다채로움과 조화로우심을 선사하고 여러 민족간의 단결과 우정을 증진시키며 민족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 안도현문화관